금능리 가을 _이원두 / 영주남부초등학교 교사

9,10월의

positive Gyo6 freecycle 2023
경북 선생님들의 감동적인 교육 실천 이야기

'생명존중 인식 및 실천 확산'

"생명사랑 실천으로 행복지수 UP 생명존중 인식 및 실천력 UP"

SUMMARY | 요약

01 — 생명사랑, 함께하면 지켜낼 수 있어요

생명사랑 특별교육기간을 맞아 생명존중 창작표현대회 공모전을 실시하여 나와 타인에 대한 생명사랑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진 옥계동부초등학교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작은 전시회를 열어 작품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마음 속에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생회와 협업하여 생명존중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생명사랑'의 뜻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보자.

02 — 마음성장을 위한 한걸음 '생명사랑'

고령중학교는 또래 상담자가 주축이 되고, 위클래스 및 학생회가 협업하여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 캠페인 "Wee(위)와 함께!"를 운영하였다. 〈행복달콤 우리학교〉, 〈생명존중을 위한 어르신과 함께하는 예절학당〉 운영을 통해 생명사랑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체험형 예방활동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연계를 통한 "마음성장학교" 를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생명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03 — 과학학습실행공동체 활동으로 생명존중 문화 만들기

생명존중을 주제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과학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전교생이 참가하는 자치활동을 통해 작년에 수행한 프로그램을 성찰하며 올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새로 정리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협력을 통한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생명존중의 가치를 내재화하는 구천초등학교의 과학인성교육은 어떤 모습인지 들여다보자.

Vol. 30

발행인 박용휘

발행일 2023년 9월 1일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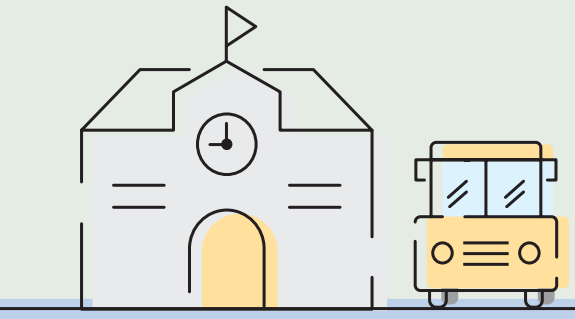
편 집 교육과정부

'탄소Zero' 실천으로 종이인쇄물을 발간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좋은Gyo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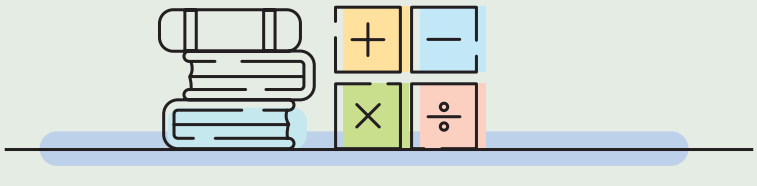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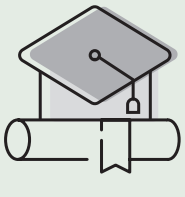


PART 1.

생명사랑, 함께하면 지켜낼 수 있어요

옥계동부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 노승주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01 들어가며

본교에서는 생명사랑 특별교육기간을 맞아 생명존중 창작표현대회를 실시함으로써 나와 타인에 대한 생명사랑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교내 구성원들 간 유대관계 및 지지체계를 다짐으로써 다양한 심리적 위기 상황 속에서 안전망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교내 생명존중 풍토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02 우리 학교에도 생명존중 문화 확산이 필요해!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할 방안이 무엇일지, 상담교사로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지 고민이 깊던 중 교육청에서 '생명사랑 특별교육기간' 관련 지침이 내려왔다. 이에 본교에서는 해당 기간동안 생명사랑 의식 증진 및 실천을 위한 '생명사랑 창작표현대회 공모전'을 5월에 개최하게 되었다. 공모전 참가 포스터를 제작하여 각 반에 비치함으로써 교내의 학생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생명존중 문화 확산'이라는 대회의 목적에 맞게 최대한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형식적 제한은 최소화 하였으며, 다양한 작품 양식을 허용하였다.
(포스터, 표어, 캘리그라피, 만화 등)

03 상품이 있어야 참여할 맛이 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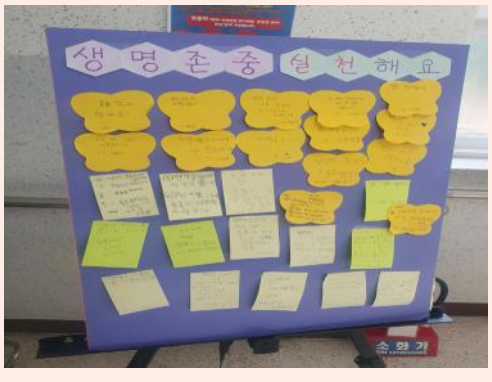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상품이다! 공모전 참가자 전원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전시 작품으로 선정된 학생들에 한해 추가 상품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공모전 참여 동기를 더욱 향상시켰다. 학생들이 좋아하면서도 대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이 무엇일지 고심하며 상품을 골랐다. 참가 상품으로는 위로의 문구가 새겨진 해바라기 모양의 형광펜을, 전시작 선정 상품으로는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힐링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의 책을 증정하였다.

04 드디어 작은 전시회를 열다

약 500명이나 되는 인원이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하였다. 작품을 제작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텐데, 4층에 위치한 상담실까지 와서 학생들이 작품을 제출해 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흐뭇했다. 담임선생님들도 이번 행사에 대해 굉장히 협조적이어서 반 전체가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공모전에 학교 구성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정말 감사했다. 약 500개의 제출 작품 중 47개를 전시작으로 선정하였다. 공모전 장소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오가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제일 접근성이 좋은 1층 로비로 선정하였다. 학생들은 작품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작품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마음 속에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05 학생회와 협업하여 생명존중 캠페인을 실시하다

학생회에서 해당 행사와 연계하여 생명존중 캠페인을 실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받았다. 학생회에서는 <미션 1. 생명존중을 주제로 '생명존중' 4행시 짓기>, <미션 2. 생명존중 실천 방법 적기> 캠페인 행사를 진행하였다. 학생회 임원들이 생명존중을 주제로 한 표어 피켓을 들고 생명존중 캠페인 및 공모전을 홍보해주어 더욱 든든한 느낌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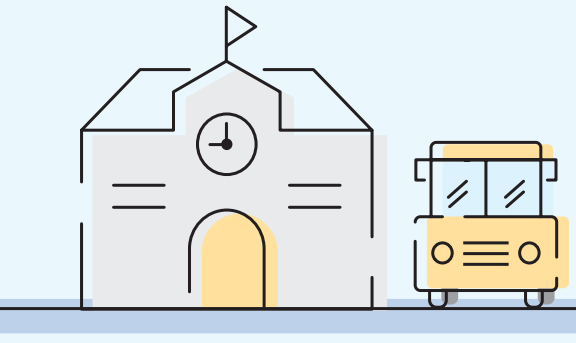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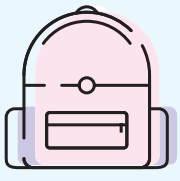
06 나오며

생명사랑 창작표현대회 공모전은 본교 학생들에게 '생명사랑'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떠올려보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또한 심리적 위기 상황 속에서 학교 구성원이 서로 어떠한 방식으로 안전한 지지체계가 되어줄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심적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즐거운 교내 행사를 기획하여 실행하고자 한다. 위클래스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심리적 안전망으로써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좋은Gyo6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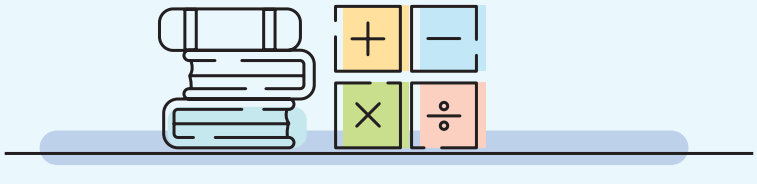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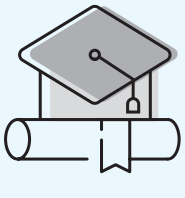


PART 2.

마음성장을 위한 한걸음 '생명사랑'

고령중학교 전문상담교사 이 조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01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 캠페인 "Wee(위) 와 함께!"

생명사랑, 생명존중, 자살예방에 대한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시 했던 점은 많은 학생들에게 캠페인의 취지를 전달하고자 함이었다. 따라서 본교의 또래 상담자가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사전에 본교 위클래스 및 학생회 SNS를 활용하여 관련 내용을 홍보하였다. 캠페인의 목적에 맞게 진행한 활동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학교 축제 시 친구와 함께 생명사랑 토퍼 들고 인증샷 촬영하기

둘째, 마음우체통이라 하여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면 학생부 및 또래상담자가 우체부 역할을 하여 해당 학생에게 전달해주기

셋째, 등굣길 하이브파이브 데이를 운영하여 교사와 학생이 한마음으로 아침 인사 나누기

각기 다른 활동이지만 마음을 서로 나누는 기회를 통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한다는 큰 틀을 함께 하였다.

생명사랑 "친구야 사랑한데이"
생명사랑 토퍼 들고 사진 찍기

생명사랑 및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캠페인
(하이파이브데이)

02 체험형 예방 활동 "행복학교 속에 피어나는 생명사랑 문화"

작년에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즐거움도 주면서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가 <행복달콤 우리학교>라는 주제로 진행한 제과제빵 체험이었다.

본 고장의 딸기를 활용하여 쿠키와 화덕 피자를 만들어 보고, 마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에게 본인이 만든 쿠키를 편지와 함께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시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직접 오감을 통하여 완성된 본인의 작품에 성취감을 느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생명존중을 위한 어르신과 함께하는 예절학당>으로 부채 만들기와 다례 복식을 통한 다도 교육 및 전통 윷놀이 체험이었다. 단회성 프로그램을 지양하기 위하여 첫 시간은 진로 수업과 연계하여 옛 조상들의 직업과 놀이 문화에 대해 학습하고, 선비 놀이 문화 중 하나로 나만의 생명사랑 문구를 담은 부채를 만들어 보았다. 학생들마다 각자의 개성을 가진 멋진 부채가

완성되고 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실용성까지 더해지며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더불어 진행한 다례 복식 및 전통 윷놀이 체험은 고령 지역의 다례원이라는 협동조합으로 직접 찾아가 다례복을 착용하고 다도 예절을 배웠다. 그 장소와 옷이 주는 분위기에 맞추어 학생들은 차분하게 명상과 차 예절을 배우면서 내면의 소리에 집중했다. 쉬는 시간에 진행한 윷놀이 역시 쉽게 해보지 못하는 놀이여서 몰입도가 높았다.

관련 활동들이 생명사랑과 연결되는 지점은 체험을 통한 집단 활동을 통하여 대인관계 및 또래관계 기술을 학습하고 다양한 자극과 감각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나, 너, 우리를 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생명사랑 문화 조성을 위한
〈행복달콤 우리학교〉

생명사랑을 위한 어르신과 함께하는 예절학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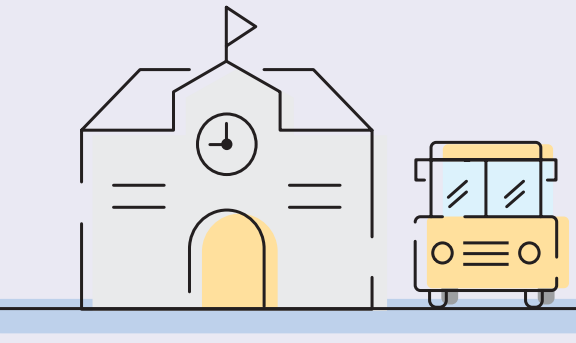
03 교과 연계를 통한 교육활동 "마음성장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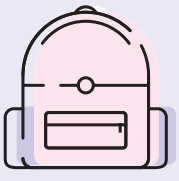
올해 학교에서 더 고민하고 힘썼던 부분은 학생들의 자해와 자살 시도 등 위기 사안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이었다. 본교는 마음성장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입학한 1학년을 대상으로 자살 및 자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5월에는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반별 2시간 교육을 고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해주었고, 6월 말에는 관련 교육을 바탕으로 한 마음성장퀴즈 대회를 진행하여 수업의 복기 및 정신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을 통하여 '스트레스가 마냥 나쁜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아니구나.' '나를 성장 시켜주는 스트레스도 있구나.' 라는 것을 학생들은 알게 되었고, 진로와 연계된 심리 수업을 통하여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좋은Gyo6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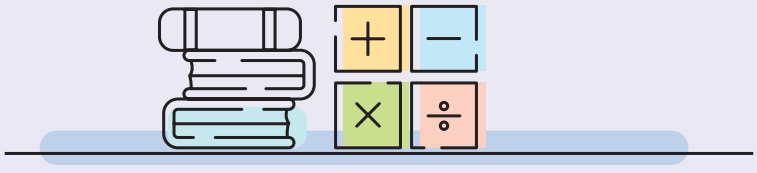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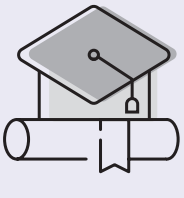


PART 3. <과학인성교육>

과학학습실행공동체 활동으로 생명존중 문화 만들기

구천초등학교 교사 남일균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01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위한 과학인성교육

인성은 덕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합쳐진 개념이다. 모호하기만 했던 인성의 개념은 최근 활발한 연구를 통해 인성교육이 다양한 맥락 속에 존재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과학습의 맥락에서 발현되는 인성의 덕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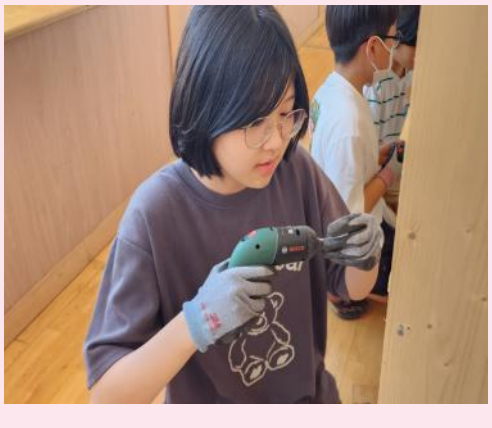
이는 학생들이 주도가 되어 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고 또 이 문화의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사회문화이론을 통해 인성의 역량을 길러가는 학습행위성을 가진 학습자 즉 학습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역량을 가진 학습자를 만들어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과도 맥을 같이한다. 한편 생명존중이라는 가치는 다양한 교과교육 중에서도 과학교과학습의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어 과학인성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지도를 필요로 한다. 인지중심의 교과교육을 넘어 전인교육으로서 과학교과교육을 통해 생명존중 의식을 길러 학생들의 삶 속에서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은 과학교과에서 인성교육으로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다.

02 생명존중의 가치를 내재화하는 구천초등학교 과학학습실행공동체 (Science Learning Community of Practice)

본교는 전교생이 7명인 소규모 학교로 학생들의 대부분이 복식학급에서 학습을 하고 있다. 동료들이 부족하고 2개 학년이 한 교실에서 2개의 교육과정을 학습하다보니 자칫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교사 1명이 학생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을 수 있기에 과학인성교육을 위한 최적의 학교라고도 할 수 있다. 2020년부터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생명존중의 주제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과학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교생이 참가하는 자치활동을 통해 3월 학교의 환경을 살피고 작년에 수행한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성찰하며 올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새로 정리하였다. 2022년에는 족제비로부터 닭들이 공격을 받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2년간 사용해오던 닭장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기로 하였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정하도록 안내하며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을 통한 성공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ZPD(근접발달영역)를 제공하였다. 자신들이 기르던 닭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은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담론(discourse)이 되고 의사소통과 지혜의 나눔, 과학 기술을 활용한 탐구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과학적 문제해결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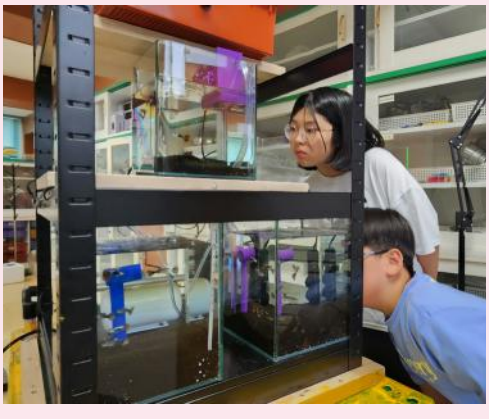
닭장의 크기를 측정하고 물질의 성질을 탐구하며 족제비의 침입을 막기 위해 부드러운 흙 위에 단단한 콘트리트로 된 벽돌을 깔았다. 벽돌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측정하여 덧셈과 곱셈의 의미를 생각했으며 어림과 측정을 통해 닭장의 크기를 정하고 바닥을 보수하였다.

메이커실에서는 목공 작업을 통해 닭의 분변 수거가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닭장을 완성해 갔고, 4월말 부화기에 유정란을 넣어 16마리의 병아리를 부화시켰다. 과학시간에 배운 에너지와 단열의 개념을 적용하여 육추기를 꾸미고 병아리들이 야외 닭장에 적응할 수 있게 단열을 이용한 임시 적응형 닭장도 만들며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하는 활동을 실행해갔다. 병아리들의 분변을 치우고 깨끗한 물과 모이를 매일 공급해가며 생명을 키우는 것에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쳤다.



성공적으로 병아리들이 닭으로 성장하며 학생들은 닭들이 배출하는 분변을 수거하여 텃밭에 거름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과,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학습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원한 '미래과학자 양성사업'은 학생들이 생명존중이라는 주제중심 학습을 실현하는 커다란 버팀목이 되었다.

예산을 지원받은 학생들은 토양수분감지 센서와 마이크로비트로 제어하는 동력장치를 구입하여 3D프린터로 뽑아낸 장치에 설치하였다.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지렁이 농장에 수분이 부족하면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수조의 물을 지렁이 농장에 공급하도록 하는 스마트팜을 만들었다. 이렇게 물을 공급받는 지렁이 농장에서는 지렁이들이 닭의 분변을 분해하여 텃밭에 제공할 거름을 생산하였다. 학생들은 생명을 지속시키는 환경의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지속시켜야 할지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고 있다.



학생들이 실행하고 있는 학습의 경험은 그들의 역사가 되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과학학습실행공동체에서 추구하며 공유해온 생명존중의 가치와 지속가능, 친환경이라는 가치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과학학습실행을 통해 만들어온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가 되었으며 이는 동시에 학생들의 삶 속에 영향을 미쳤다. 오늘도 구천초등학교 학생들은 다양한 생명존중의 이야기들을 그들의 삶을 통해 들려주고 있다.